

비트코인, 사상 첫 9만弗 벽 넘었다 ETF자금 유입에 힘 실는 상승 랠리

8일 동안 35% 급등 연이은 최고가
현물 ETF, 8억1754만弗 자금 유입
“단기조정 후 연말까지 10만弗 기대”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첫 9만달러를 돌파하면서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가상자산 낙관론’에 힘입어 폭발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단기조정 후 연말 1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가상자산 시장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8만72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비트코인은 9만45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사상 첫 9만달러 진입에 성공했다.

전날 8만9800달러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은 차익 매물 실현으로 8만5000달러까지 하락했지만 오전 4시부터 매수세가 활발하게 유입됐다.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날인 지난 5일 7만달러를 돌파했고 지난 11일 8만달러 돌파, 이를 뒤인 이날 9만달러를 돌파하면서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8일 동안 무려 35%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트럼프 당선에 따른 기대감이 여전하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힘입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단기조정을 거친 후 상승세를 이어나가 연내 10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기관투자자 및 연기금의 본격적인 자금 유입이 이뤄지기 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동력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12일 서울 서초구 빙셀리온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펀드(ETF) 시장은 이날 5거래일 연속 순유입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은 8억1754만달러(1조1505억원) 상당의 자금이 들어왔다. 대선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신규자금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종합 누적 유입액은 277억 2000만달러로 전일 대비 269억 달러 늘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까지 승인하며 향후 기관투자자의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인도계 출신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를 ‘정부효율부’ 수장에 내정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가상화폐 산업을 지지했던 인물

들이다.

‘정부효율부’는 연방 정부 전체의 재정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가상화폐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현지 베팅플랫폼 ‘칼시’ 이용자 60%는 ‘내년 1월 이전 비트코인이 10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에 베팅했으며 ‘이달 중 10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베팅한 이용자도 45%에 달했다.

제프 캔들릭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애널리스트는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손쉽게 10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말이나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12만5000달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국내 증시 투자자 이탈 현상 뚜렷”

>> 1면 ‘트럼프 특수...’서 계속

비트코인 강세에 국내 증시 불안감 ↑
금융당국, 변동성 확대 안정 방안 마련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되는 투자자예탁금도 연초 59조4949억원에서 이달 11일 기준 51조1952억원으로 줄었다. 투자자에탁금의 감소는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 열기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한국예탁결제원 기준 투자자들의 미국주식 보관 금액은 연초 670억 달러(94조원)에서 11월 기준 1035억달러(145조원)로 급증했다. 지난 7일 최초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는데, 2022년 말 442억달러(62조원)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국내 증시에서는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지만, 미국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증가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친비트코인

파’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3일 가상자산 시장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8만72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비트코인은 9만45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사상 첫 9만달러 진입에 성공했다.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날인 지난 5일 7만달러를 돌파했고 지난 11일 8만달러, 이를 뒤인 이날 9만달러를 돌파하면서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8일 동안 무려 35%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도 이날 5거래일 연속 순유입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은 8억1754만달러(1조1505억원) 상당의 자금이 들어왔다. 대선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신규자금이다.

이날 미국 증시는 ‘트럼프 랠리’ 피로감에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승추세 지속 기대감은 여전히 보인다.

반면 국내 증시는 달러 강세와 미 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하방 압력이 더해지고 있다. 이날도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06.6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는 주간거래 기준으로 전일보다 3.1원(0.2%) 상승한 것으로, 2일 연속 달러당 1400원선을 웃돌았다. 환율이 달러당 1400원을 넘긴 것은 지난 2022년 11월 7일 이후 2년 만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트레이드’는 숨고르기가 나타났으나 달러 강세와 국채 금리 상승이 지속되며 국내 증시에 대한 부담이 여전하다”며 “수급 부진이 이어질 수 있어 대형주 및 지수 약세가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경각심을 갖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추세로, 시장 불안 확산 시 시장 안정을 위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킹달러 영향에 유가상승 겹쳐 수입물가 6개월 만에 ‘최대치’

한은 ‘10월 수출입물가·무역지수’
10월 수입물가지수 137.61로 상승

지난달 우리나라 수입물가가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74달러를 넘어서고 원·달러 환율이 1360원까지 오르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11월 이후 물가가 소폭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4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37.61로 한달 전과 비교해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3.8%) 이후 6개월 만에 최대치다.

수입물가가 오른 이유는 국제유가가 상승한 영향이 컸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월평균 가격은 지난달 배럴당 74.94달러로 전월(73.52달러) 대비 1.9% 올랐다.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환율은 1361원으로 한달 전(1334.82)과 비교해 2% 올랐다.

고(高)유가·고환율 여파로 원재료는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4.1% 상승했다. 원유(3.9%)와 유연탄(6.4%)을 중심으로 오른 영향이다. 중간재는 석

탄및석유제품(4.1%), 1차금속제품(2.9%) 등이 오르며 1.6% 상승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전월 대비 0.5%, 1.1% 올랐다.

특히환율상승은수입물가와생산자물가를 밀어올려 물가상승을 부채질한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입의존도가 높은만큼 환율이 상승하면 원유, 곡물 등 수입 원자재 가격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이다.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맞물리면서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122.92로 전월대비 1.7%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며 석탄및석유제품(5.5%), 화학제품(2.1%) 등 공산품을 중심으로 수출물가를 끌어올렸다. 달러기준 수출금액지수는 0.1% 상승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92.99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3.9% 상승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지난 8월 1.3% 떨어진 뒤 2개월 연속 올랐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지수화한 수치다. 순상품교역지수가 개선됐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물건을 팔아서 사올수 있는 물건의 양이 늘었다는 의미다.

/나유리 기자 yul115@

타임폴리오, 미나스닥100액티브 ‘고공행진’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수익률 올라
미국 대선일 이후 11일까지 8.5% ↑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중인 가운데, 비트코인 관련주를 담고 있는 ETF의 수익률도 지수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타임폴리오의 자사의 ‘TIMEFOLIO 미국나스닥100액티브 ETF’가 미국 대선일 이후 11일까지 8.5% 상승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상품의 연초 이후로는 수익률 62.5%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나스닥100지수가 1.6% 상승한 것을 고려할 때 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TIMEFOLIO 미국나스닥100액티브 ETF는 마이크로스트레티지(MSTR)와 코인베이스 글로벌(COIN)

을 각각 9.6%, 4.4% 비중으로 편입하고 있다. 국내 상장 ETF 중 비트코인 관련주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다. 11일(현지시간)비트코인관련주인마이크로스트레티지와 코인베이스가 급등세를 타면서 TIMEFOLIO 미국나스닥100액티브 ETF의 수익률은 더 높아졌다.

미국 내 블록체인 관련 ETF인 FDI G(암호화산업&디지털결제), DAPP(디지털 전환) 등도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등을 높은 비중으로 편입 중이지만, 국내 연금계좌에서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TIMEFOLIO 미국나스닥100액티브 ETF는 연금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하다. 트럼프 2.0 시대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12.9% 비중으로 편입하고 있다. /허영준 기자 zelkova@

“주주 목소리 반영 위한 이사회 개편”

>> 1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서 계속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 매수가 종료된 직후 10월 24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해 이후 상황을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주가가 폭등하고 두 차례 공개매수 이후 많이 줄어든 유통 물량으로 인해 시장 불안정성이 극도로 심화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이른 시일 내에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이사회의 독립성 강

화, 소액주주 보호와 참여를 위한 방안을 추진해 주주와 시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진한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이르면 연말로 예상되는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 대결로 판가름날 것으로 관측된다.

/차현정 기자 hyeon@